백두산

39호 - 주체91(2002)년 5월 23일 (목)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법무부의 석가탄신일 가석방조치는 기만적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다만 법무부는 19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1200여명의 형이 확정된 구속자들을 가석방하면서 정작 먼저 석방해야할 양심수들은 불과 몇명밖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가석방된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문제 등으로 형을 받은 잡범들입니다. 이것은 이번 가석방조치가 당국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사법당국이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가르치심대로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기만적인 광대극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이 땅의 각지 교도소들에는 근 200명의 양심수들이 ****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수배자도 140여명이나 됩니다.

양심수들로 말하면 ≪한국≫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해 투쟁하다 부당하게 형을 받고 옥살이하고 있는 애국자들입니다.

애당초 당국이 이들을 구속하고 재판처형한 것부터 잘못입니다. 그래서 각계 국민들은 양심수들의 전원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국자들은 국민들의 요구대로 양심수들을 석방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석가탄신일을 맞아 1200여명의 구속자들을 가석방하면서 마땅히 우선 석방해야 할 양심수들은 불과 몇 명밖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법당국이 말로는 민족의 존엄과 민주, 통일을 떠들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바라지 않으며 부처님의 가르치심대로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하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로 되는 것입니다.

당국자들이 지금 이 시각에도 임금인상과 해고반대, 주5일근무제도입 등 처우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노조간부들을 부당한 죄명을 씌워 구속처형하는가 하면 이 땅을 반세기이상이나 강점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항시 위협하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민중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참을 수 없는 것은 당국이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투쟁하는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애국민중들을 범죄시하며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민중이 어찌 분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국자들이 떠들어대는 상생과 화합에 대해 곧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민중들을 범죄시하며 탄압하는 당국자들을 단죄하면서 부당하게 구속처형한 양심수들을 무조건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하겠습니다.

당국자들이 진실로 이 땅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바라고 부처님의 가르치심대로 할 의향이 있다면 애국민중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양심수들을 즉각 전원석방해야 합니다.

각계 민중들은 애국민중들에 대한 당국의 탄압을 반대하고 양심수들의 석방과 정치수배해제를 요구해 더욱 줄기차게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1일

남조선에서의 반미, 반전, 반핵투쟁기운

≪로동신문≫ 21일부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 반전, 반핵투쟁은 광범한 대중투쟁으로, 지역적범위를 벗어 난 남조선 전 지역적인 투쟁으로, 조직적인 련대공동투쟁으로 벌어 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부쉬의 ≪악의 축≫ 망발과 서울행각을 계기로 고조된 반미진출은 미제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반미, 반전, 반핵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 반전, 반핵투쟁은 조선민족의 존엄과 생존권,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애국애족적투쟁이다.

미제의 침략과 핵전쟁도발책동으로부터 민족의 존엄과 생존권, 자주권을 지키는 투쟁에서는 북과 남이 따로 있을수 없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핵공갈은 곧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공격은 곧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전체를 핵참화속에 몰아 넣으려는 민족멸살책동이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 반전, 반핵투쟁은 단순한 반미항전에 그치지 않고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민족자주의 기치아래 민족의 단합과 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오늘의 남조선인민들은 숭미공미사상의 울타리에 갇혀 있던 지난 날의 그런 인민이 아니라 민족자주를 지향하고 반미, 반전, 반핵의 기치를 들고 나선 각성된 인민이다.

미국은 사태를 바로 보고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한다.

2002/05/21 조선중앙통신

김일성주석님을 찬양하는 전단 살포

인천시 계산동 광복아파트 일대

지난 18일밤 10시 30분쯤 인천시 계산동 광복아파트일대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을 찬양하는 전단이 대량 살포되어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광복아파트일대에는 가로 7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전단 3800여장이 뿌려졌습니다.

전단을 본 주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해 했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5월 21일

2 종합
- ≪종교자유침해≫운운은 미국내 불순세력의 정치적 모략극
- 일본 민간방위조직창설책동, 군국주의화의 한 고리
- 이북, 서방의 한반도문제 오판 강력 비판
- 북, 미국의 적대적 표현 일일이 반박
- 6.15선언지지주한미군철수 국제서명운동
- 국방부, 환율로 전투기 가격 속였나?
- 친미안보주의자의 뿌리를 찾아서

4 노작
-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9)

6 세기와 더불어
- 8장 6절 밀림속의 병기창(2)

8 칭송
- **김정일**영도자
- **김정일**각하를 모신 인민은 행복한 인민

9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화성의숙에 입학해서 혁명활동을 시작
- 인민적인 선거제도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노농대중은 통일의 기관차가 되자

12 투쟁보도
- ≪한국전쟁때 미군은 범죄행위를 했다≫
- 21일 용산미군기지반환 위한 지신밟기
- 이문옥 득표가 아니라 당선이 목표
- 진보정당 후보 외면, 알 권리 빼앗는 것
- 민노당 부산시장후보 범시민후보 추대
- 김대중편집인 IPI발언 규탄대회
- 이회창 ≪6.15선언 폐기 발언≫ 논란

15 운동강좌
- 정세변화에 조응하는 전국적 관점의 새로운 전략전술(2)

≪종교자유침해≫ 운운, 미국내불순세력의 모략극

21일부 ≪로동신문≫은 미국의 일부 그리스도교인들이 우리 나라를 ≪종교자유침해국≫으로 걸고 든것을 미국내불순세력들이 조작한 추악한 정치모략극으로 단죄하였다.

신문은 미국의 그리스도교인들은 그 누구의 ≪종교자유침해≫를 운운하기전에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군이 우리 나라에서 저지른 종교말살책동을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시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미국당국은 말로만 ≪조미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할것이 아니라 조미관계개선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걸음마다 차단봉을 내리려는 불순세력들의 책동에 말려들지 말아야 하며 흑백을 가려 보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이 우리 나라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문제를 계속 걸고 드는것은 그들이 우리 나라의 종교와 인권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고 하면서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것은 그런것을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자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그런 구실을 내걸고 우리에 대한 정치, 군사적간섭을 강화하자는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로골적인 내정간섭책동의 반동적본질과 속심이 있다.

2002/05/21 조선중앙통신

일본 민간방위조직창설책동, 군사대국화책동의 한 고리

≪민주조선≫ 21일부는 일본반동들의 무력증강과 민간방위조직창설책동을 하나로 련결된 군사대국화책동의 한고리로 락인하고 여기에는 나라의 군국화를 하루빨리 실현하여 본격적인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려는 그들의 흉심이 그대로 비껴 있다고 까밝혔다.

론평의 필자는 일본의 군사적움직임은 제2차세계대전시기의 ≪황군≫의 침략행동을 그대로 방불케 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미 위험한 군국주의침략세력으로 등장한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군사행동을 벌리는것은 이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새로운 심각한 사태가 아닐수 없다.

해외침략을 꿈 꾸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을 그대로 두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해 말할수 없다.

일본반동들은 일본의 해외침략을 용납치 않으려는 아시아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의지를 똑바로 보고 무모한 재침책동을 당장 걷어 치워야 한다.

해외침략은 곧 일본을 파멸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는 길이다.

2002/05/21 조선중앙통신

이북, 서방의 한반도문제 오판 강력비판

이북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일부 대북전문가들이 이북 관련 분석에서 빈번하게 오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최근호(5.16)는 ≪조선반도문제를 똑바로 보고 대하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계적으로 한반도문제에 대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주장 가운데 잘못된 분석을 내놓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방세계의 내로라 하는 대북전문가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서방의 대북전문가들이 임동원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방북이나 북-미, 북-일 간의 접촉과 협상 진행에 대해 미 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어떤 논리도,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신문은 미국에 의해 동결됐던 남북관계에서 일련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힘 있는 사람만이 베풀 수 있는, ≪전적으로 우리의 아량에 기초한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우리의 아량의 바탕에는 적대세력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답한다는 혁명적 원칙이 있다≫면서 그런데도 남북관계를 부시 행정부의 강경정책의 결과라고 분석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이어 서방 대북전문가들이 빈번한 오판은 ≪우리에 대해 똑바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 대북문제에 관심이 있고 그에 대해 말하고 싶거나 이북과 무슨 일이든 하고자 하는 사람은 ≪힘의 만능론리에 기초한 독선주의와 강권이 우리에게 절대로 통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사회주의에 대해 진짜로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선영 기자
2002/05/22

6.15선언지지 주한미군철수 국제서명운동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며 한국에서 미군을 즉각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국제적 서명운동이 여러 나라에서 진행됐습니다.

4월 17일 노르웨이에서는 공산당 외스트폴드주위원회 위원장이, 4월 18일 에콰도르에서는 사회당 위원장과 헌법재판소 제3위원회 위원장이,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지지 에콰도르위원회 위원장, 주체사상연구 에콰도르문화협회 위원장 등 인사들이 각각 자기 조직을 대표해 서명했습니다.

한편 4월 19일 말레이시아에서는 전국신문노조 서기장은 2600명의 노조성원들을 대표해 서명했습니다.

서명문은 6.15남북공동선언은 전체 조선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반영해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조선민중 자체의 힘에 의거해 통일해야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거머쥐고 나가야 할 통일의 이정표라면서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고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지 않는한 한반도의 통일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고 서명문은 강조했습니다.

이로부터 서명문은 남북이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남에서 미군을 즉각 철수시킬 촉구했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5월 21일

北, 美 적대적 표현 일일이 반박

북ㆍ미 대화재개를 위한 물밑접촉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북측이 잇따라 미국의 적대적 표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적대적 표현으로는 양국간 관계 개선의 관건인 ≪테러지원국≫이란 표현 외에 ≪불량국가≫ ≪우려대상국≫ ≪종교자유침해국≫ ≪종교탄압국≫, ≪인권침해국≫ 등이 있다.

미국은 지난해까지 이북을 가리켜 ≪테러지원국≫ 또는 ≪불량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으나 지난해 9월11일 사태로 양국이 첨예한 대치상태를 거친 이후 미국 정부는 최소한 공식석상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자제하고 있다.

대신 미국은 이북의 핵 및 미사일 무기 개발과 수출을 이유로 ≪우려대상국≫이란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북 주민의 인권이나 종교의 자유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테러지원국 또는 불량국가란 표현은 종종 미국의 군사적 응징의 대상과 동일시돼 왔다는 점에서 미국이 종교와 인권 문제로 비난의 수준을 낮춘 것은 부시행정부가 출범 이후 1년반 가까이 이북과의 대화가 중단된 상태를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북측은 여전히 미국이 인권이나 종교 등을 거론하며 비난하는데 대해 극력 반발하면서 ≪미국의 적대시정책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신문이 15일 미국의 ≪우려 대상국≫이란 표현에 대해 ≪터무니 없는 궤변이며 대북 적대시 정책의 연장≫이라고 반박했고 이어 20일에는 조선중앙방송이 ≪종교탄압국≫이란 표현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또 20일 ≪가소롭게 놀지 말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서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문제를 걸고 전례없는 반공화국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측 언론들은 이들 보도물에서 미국이 대북 비난을 계속하는 것은 이북과의 대화에 뜻이 없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미국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한 양국간 대화 재개가 어려울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북측 언론의 이런 입장이 이북 정부 당국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 등은 북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채로서 당국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이 지난달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의 특사 방북 이후 대북 대화 분위기를 띄우려 노력하는 가운데서도 북측은 거듭 ≪대화분위기 조성 미흡≫을 지적해 왔고 20일 러시아를 방문한 백남순(白南淳) 이북 외무상도 북ㆍ미 대화 재개 문제를 언급하며 같은 취지로 말했다.

북측 언론이나 당국 및 당국자들의 이런 입장은 미국이 이북과의 대화 재개를 선언하면서 대북 비난의 수위를 낮춰왔다 할지라도 이북은 미국의 ≪비난 수위 조절≫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2000년 8월 남측 언론사 사장단과 만나 ≪미국이 테러지원국 딱지만 떼주면 수교할 것≫이라고 말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양국 관계 개선의 관건으로 여겨져왔으나 미국은 조만간 이북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강진욱 기자
2002/05/22 연합뉴스

국방부, 환율로 전투기 가격 속였나?

≪한겨레≫, ≪≪라팔보다 F-15K 싸다≫는 발표는 환율 눈속임≫ 보도

F-15K, 라팔보다 싸지않다

"더 낮은 값 합의" 국방부 발표는 환율 눈속임

1억4천만달러 비싸

[illegible]

국방부가 지난 18일 미국 보잉사와의 협상에서 F-15K 가격을 최종적으로 2억300만 달러 낮춰 다소사의 라팔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게 됐다고 발표한 내용이 환율에 의한 ≪눈속임≫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레≫는 22일자 2면에서 ≪F-15K, 라팔보다 싸지 않다≫는 기사를 통해 ≪(라팔보다) 더 낮은 값에 합의했다는 국방부 발표는 환율 눈속임≫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애초 국방부는 차기 전투기 가격경쟁의 기준 화폐를 ≪달러≫로 정하면서 환율의 적용시점을 ≪가격 제안시점≫으로 적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다소사의 라팔 가격에 대해 가격을 제안한 시점인 지난 2월의 유로-달러 환율로 적용하지 않고, 지난해 평균 유로-달러 환율을 적용함으로써 라팔 가격이 더 높게 계산됐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들의 확인을 거쳐 ≪한겨레≫가 밝혀낸 ≪환율 눈속임≫ 과정은 아래와 같다.

지난 2월, 미국 보잉사와 프랑스 다소사가 최종 가격입찰에서 제시한 가격은 각각 44억6700만 달러와 47억7900만 유로. 이때 국방부는 다소사가 제시한 가격을 달러로 환산하면서 ≪지난해≫ 평균 환율인 0.89달러를 적용했다. 이 계산에 따르면 47억7900만유로는 42억6800만달러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때 처음 발표한 대로 ≪가격 제안시점≫의 환율을 적용했어야 했다. 지난 2월의 유로-달러 환율은 0.86달러. 지난해 평균 환율보다 0.03달러가 낮은 수치다. 국방부가 제대로 적용을 했다면 라팔의 달러 가격은 41억1800만달러가 된다. 즉 다소사가 제안한 차기 전투기 가격은 41억1800만달러다.

지난 18일, 국방부가 마치 큰 협상을 성공한 것처럼 발표한 보잉사의 F-15K 최종 가격은 42억6400만달러. 라팔 가격보다 무려 1억4천만달러가 높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잘못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최초 라팔의 가격 42억6800만달러와 비교해 보잉사가 다소사보다 400만달러 낮은 가격인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문제를 두고 ≪유로-달러 환율이 자주 바뀌어 지난해 평균환율을 적용했고, (당시) 조달본부의 환율 환산 공문은 가격경쟁 때만 적용된 것≫이라 해명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한편 ≪한겨레≫의 이번 보도에 대해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다소사는 이런 의혹을 얼마 전부터 제기해 왔었다≫며 ≪당시에는 다소사의 일방적 주장이라 생각해 문제 삼지 않았지만, (국방부의 환율 눈속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김영균 기자
2002/05/22 오마이뉴스

친미 안보주의자의 뿌리를 찾아서

일제 잔재를 이어가는 미군

주한미군의 군사지도에는 아직도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 그들은 절대 이 표기를 수정하지 않는다. 우리 국방부는 한미연합사령부에 이 사실을 항의 한 바 없다. 그러면서 연합사가 동해라고 하건 일본해라고 하건 전혀 알 바 아니라는 투다.

한국의 시차 기준은 동경 135° 다. 우리 영토를 전혀 지나지 않는 동해 한가운데를 시차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한국의 시간 개념은 크게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해방 후 미군이 한국과 일본의 시차 기준이 다르니까 작전에 혼선에 생긴다고 해서 한국정부가 미국의 요청으로 시차 기준을 바꿔버린 것이다. 일본 오끼나와에서 출격한 미군 비행기가 한국에서 작전을 하면 시간개념이 달라져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다면 같은 이유에서 일본에서 출격한 미군 비행기가 일본해를 지난다고 무전을 칠 경우 한국군이 미군 비행기가 동해를 지난다는 것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일본 근해 어디쯤을 지나는 것으로 오인할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로 인한 혼선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은 시차로 인해 생기는 혼선 못지 않게 중요한 것 아닌가. 나는 이 점이 궁금하기 짝이 없다. 왜곡된 시간과 왜곡된 명칭의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느새 불감증에 걸려버리고 말았다.

친미 주류군맥의 비밀

국방부 고위층에서 발견되는 이상한 분위기가 있다. 영어를 잘하는 장군은 굉장히 유능한 장군, 영어를 못하는 장군은 무능한 장군이라는 이분법이다. 대개 고위 장성 보직이동이 있을 경우 신문지상에 나는 인물평을 보면 ≪영어가 유창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도용 인물평을 작성할 때 영어를 잘한다는 사실을 넣고 싶어하는 본인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배경을 한번 보자. 국방부가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1년간 국비 유학생을 총 643명을 보냈는데, 이중 박사과정 유학자 207명중 159명이 미국 유학생이다. 그 다음으로 영국이 26명이며, 독일 3명, 러시아 1명, 스페인 2명, 이태리 1명, 일본 9명, 캐나다 1명, 프랑스 4명, 호주 1명이다. 박사의 77%가 미국 박사다. 그나마 미국식 사고를 깊이 추종하는 미, 영, 일 3개국 박사 유학자가 전체의 94%에 달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오로지 미국 중심의 세계관에 편중되기 쉬운 교육환경, 다양성이 상실된 사고구조를 확대재생산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유럽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극히 적고 세계에는 오직 미국만이 존재한다는 집단적 착시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런 사고 속에서는 미국의 전방위적인 F-15K 구매압력도 압력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국민들이 다 아는 명백한 미국의 압력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전혀 압력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정 억울하면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오라고. 얼마전 집권 민주당의 최고 실세 아들이 미 방산업체 도움으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졸업 후 미국 방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유학을 알선한 방산업체는 F-15K를 공급한 보잉사, 취업을 알선한 업체는 F-15K 엔진을 공급한 GE사라고 보도된 바 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 이상이다. 국방부 고위층 자제들도 그와 동일한 혜택을 받은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그 중 내가 아는 분도 몇 사람 있지만 차마 개인의 명예를 생각해서 밝힐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 혜택을 못받으니까 억울해서 자꾸 시비를 거는 것 아니냐고.

김종대 군사전문가
2002/05/22 통일뉴스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9)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 주체69(1980)년 10월

4.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자(2)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서만 수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완전한 군비철폐를 실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입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군사쁠럭을 해체하여야 합니다.

군사쁠럭은 랭전 정책의 산물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항시적인 요인입니다. 군사쁠럭들은 지구 위에 생겨난 첫날부터 군비확장과 무력증강을 다그쳐 왔습니다. 오늘도 제국주의자들은 그 무슨 ≪침략 위협≫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군사쁠럭들의 무력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있으며 새로운 군사쁠럭과 군사동맹을 조작하기 위하여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군사쁠럭들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한 국제 긴장상태는 계속 격화될 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인류를 또다시 새로운 세계전쟁의 참화 속에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결코 군사쁠럭이나 렬강들의 이른바 ≪세력 균형≫에 의하여 유지될 수 없습니다. 세계의 평화는 오직 지구 우에서 모든 군사쁠럭들, 침략과 전쟁수단들이 완전히 청산될 때 비로소 항구적이고 공고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군사쁠럭을 비롯하여 모든 군사쁠럭을 해체할 것을 주장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군사쁠럭이 해체되면 사회주의나라들의 군사쁠럭도 필요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군사쁠럭을 해체하는 것과 함께 다른 나라에 있는 침략적 군사기지를 철페하고 외국군대를 철수하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군사 기지와 군대를 두는 것은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령토 안정을 침해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 시대의 추세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남조선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외국의 모든 군사기지들을 철폐하고 침략군대를 무조건 철수할 것을 주장합니다.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넓혀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아세아와 중근동,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구라파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사용을 금지하며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페기할 것을 주장합니다.

현 시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신흥세력나라들 사이의 분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에 의하여 신흥세력나라들 사이에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그것이 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일부 지역에서는 평화와 안전이 교란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신흥세력나라들이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신흥세력나라들 사이의 분쟁문제를 쌍방의 리익과 세계의 평화위업에 맞게 당사자들이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만일 신흥세력나라들 사이의 분쟁 문제에 외부세력이 끼여들어 어느 한편을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면 분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신흥세력을 분렬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신흥세력나라들 사이의 분쟁문제에서 어느 한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어디까지나 공정한 립장에 서서 분쟁문제를 쌍방의 리익에 맞게 당사자들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조선로동당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과 새사회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을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자본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세계 모든 피압박 인민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

우리 당은 팔레스티나와 중근동, 남부 아프리카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자주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조선로동당은 반제자주의 기치 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 세계의 모든 진보적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이 없고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

현 정세는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로 하여금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 적극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전 세계평화애호인민들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세계혁명적 인민들은 렬강들의 어떠한 침략과 전쟁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며 다른 나라 령토에 있는 모든 외국 군사기지와 침략군대를 철거시키고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함으로써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혁명적 나라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이룩하여야 제국주의와 온갖 지배세력들을 고립약화시키고 반제자주력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제 자주 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지배세력들이 신흥세력나라들 사이에 리간을 조성하여 서로 싸우게 하고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세계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 사이의 단결이며 그 목적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없애고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주성을 떠나서는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자주성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진정하고 공고한 단결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은 대외 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하며 어떠한 지배세력에도 아부아첨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하며 남의 장단에 춤을 추거나 남의 대리인 노릇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남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남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원칙적 립장을 지켜야 합니다.

반제자주력량은 말 그대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력량입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과 함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립장을 지켜야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의 한 대오에서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제국주의의 침략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제도 자체가 소멸되지 않는 한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변할 수도 없고 약화될 수도 없습니다. 제국주의에 있어서 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침략적 본성이 아니라 침략 수법입니다. 세계혁명적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변장술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침략수법의 변화를 제국주의 본성의 변화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와 무원칙하게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제국주의나라들과 국가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경제문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대외 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자주, 친선, 평화, 이것이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입니다.

화교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과 원칙적 문제를 가지고 흥정하여서는 안되며 제국주의자들에게 혁명의 근본리익을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나라들과 국가관계를 좋게 가지기 위하여 반제적 립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나라의 리익을 위하여 다른 나라의 리익을 희생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은 견결한 반제적 립장을 가지고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철저히 폭로 규탄하여야 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을 적극지지 성원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공동 보조를 취하여야 합니다.

현 시기 제국주의와 온갖 지배세력들을 발대하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운동이며 제국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입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켜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신흥 세력 나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쁠럭불가담운동의 근본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쁠럭 밖에 있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이며, 어떤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나가는 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근본원칙입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절대로 그 어떤 쁠럭에 추종하거나 끌려가지 말아야 하며 쁠럭불가담운동 안에 분렬을 조성하거나 새로운 쁠럭을 형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쁠럭불가담운동은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할 수 있으며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완전한 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 가운데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으며 오랜 성원국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다같이 쁠럭불가담운동의 동등한 성원국이며 세계혁명발전에 공동으로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쁠럭불가담운동 안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개별적 나라에 특권적 지위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절대로 쁠럭불가담운동 안에서 특권 행세를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쁠럭불가담나라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시비하거나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특히 쁠럭불가담나라들 사이에 무력을 행사하거나 분쟁 문제를 군사적 충돌에로 이끌어가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에 속아넘어가 서로 반목 질시하거나 싸우지 말고 굳게 단결하여 지배 세력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에 공동으로 맞서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고 적극 지지하여야 하며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고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할 때 참으로 위대한 힘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없애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식민주의제도의 산물이며 강대국들에게만 리득을 가져다 주는 불공평한 질서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의거하여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자연부원을 마음대로 략탈하고 있으며 이 나라들에 경제적 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에서 벗어나려면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공정한 금융통화제도를 세우며 온갖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경제관계를 개편함으로써 국제적 착취의 근원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특히 국내자원과 경제명맥에 대한 영구주권을 지키며 원료는 눅은 값으로 팔고 공업품을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사지 않으면 안 되는 불공평한 무역관계와 편파적인 분업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세계 원료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힘을 합쳐 투쟁하면 능히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그들을 곤경에 몰아 넣을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곤경에 빠져 다른 출로가 없을 때 그들은 싫든 좋든 신흥세력 나라 인민들의 요구에 응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과 함께 국제정치관계 분야에서도 렬강들의 특권과 전횡을 없애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국제무대에서 강대국들만이 특권을 행사하도록 되여 있는 질서는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낡은 질서도 오늘의 새로운 정세와 국제력량 관계에 맞게 개편되고 재조정되여야 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전횡을 끝장내고 불합리한 모든 국제기구들을 세계 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평화와 진보의 기구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현 시기 세계혁명을 발전시키는 데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의견상이로 하여 통일단결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혁명에서 마땅히 놀아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제당, 형제나라들 사이의 의견상이가 더는 확대되지 말아야하며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은 하루빨리 실현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단결을 첫 자리에 놓고 여기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하며 의견상이를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절대로 형제당, 형제나라들 사이의 분렬을 조장하고 단결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단결에 리롭고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튼튼히 하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혁명로선입니다. 우리는 대외활동을 적극 벌려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튼튼히 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자주권을 옹호하고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전반적 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대외 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자주, 친선, 평화, 이것이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입니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모든 대외정책을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자신의 판단과 주견에 따라 외교활동을 벌려 나갈 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완전한 평등과 호상 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당,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국제관계 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풀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당은 외부세력이 우리 민족의 리익을 침해하거나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남이 하는 일을 맹목적으로 따라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나라의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존중할 것이며 남에게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과 리념을 확고히 지키며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입니다.

(내일 계속)

3권 제8장

반일의 기치높이

1. 이광
2. 오의성과의 담판
3. 동녕현성 전투
4.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논함
5. 마촌작전
6. 밀림속의 병기창
7. 영생의 꽃

6. 밀림속의 병기창(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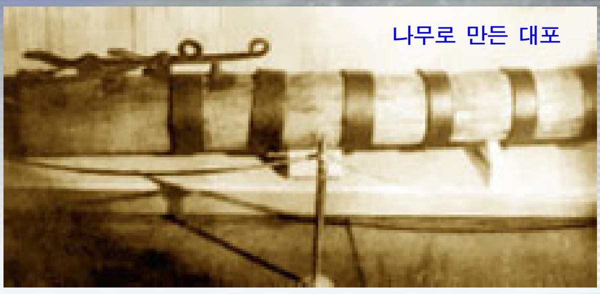
화약의 개발은 병기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화약이 해결되자 작탄제작이 부쩍 늘어나게 되었다. 작탄은 양철통을 이용해서 도화선을 물리는 방법으로 만들어냈다. 껍데기로는 통조림통을 많이 이용하였다. 적 통치구역이나 반유격구의 지하조직들에서 모아보낸 통조림통 속에 화약이 장약된 기름통같은 것을 넣고 통조림통 껍데기와 기름통 사이의 빈 공간에 마시진 보습이라든가 파편으로 쓸 수 있는 쇠붙이들을 깨뜨려 넣고 심지를 물리면 곧 작탄이 되었다.

순수한 손노동으로 만들어내는 작탄이었던 것만치 물론 조작도 불편하고 볼품도 없었다. 손동작이 굼뜨면 조작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 한 대원은 양수천자에서 적들을 칠 때 심지에 불을 다느라고 꾸물꾸물하다가 팔이 떨어진 사실도 있었다. 그러나 이 작탄은 수류탄과는 대비도 할 수 없으리만큼 굉장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군인들이 빨치산의 작탄이라면 벌벌 떨었다.

화약이 생기게 되면서 유격근거지들에서는 나무포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오의성의 부대는 지금의 반탱크총과 비슷한 쇠로 만든 대포를 쾅쾅 쏘아대며 싸움을 했지만 우리는 그런 호강을 하지 못하고 나무포라는 것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왕청사람들이 쇠스래나무를 가지고 처음으로 나무포를 만들어낸 것은 동녕현성전투 직후였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대두천을 칠 때 이 포를 쏘아보았는데 소리가 뇌성벽력처럼 요란하였다. 손으로 두드려 만든 나무포가 위력을 내면 얼마나 큰 위력을 내겠는가. 그런데 그 포로 한 방 쏘자 적들은 놀라서 다 달아나버렸다.

화룡지방 사람들도 어랑촌의 머구엔즈에 있는 병기창에 나무포를 만들어냈다. 그들이 그 포를 천리봉에 올려놓고 쏘면 30리 밖에 있는 이도구의 일본군경까지도 혼비백산해서 아우성을 치곤 하였다.

혁명군이 나무포를 쏘면 적들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나무로 만든 대포

어리둥절해 하였다. 아무런 기술설비도 없는 유격근거지들에서 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식밖의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무기 제작과 수리에서 병기창 일군들이 발휘한 혁명적 적극성과 견인불발성, 창의창발성은 실로 세인을 경탄시킬 만한 것이었다. 그 당시 유격대의 병기창들에는 현대적인 기계나 공구가 거의 없었다. 왕청 사람들이 착공기 1대를 가지고 있었고 박영순이 주관하고 있던 화룡병기창 일군들이 대립자의 단야업자를 통하여 구해들였다는 손볼반 한 대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연길현의 두도구, 능지영 병기창들에 그런 기계수단들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하는 것은 기억에 삭막하다. 착공기와 손볼반을 제외한 최상의 수단은 줄칼이었다.

병기창 일군들은 줄칼을 가지고 별의별것을 다 수리하였다. 그들은 줄칼로 쓸고 숫돌로 갈고 망치로 두드리고 불과 물과 진흙에 담금질을 하는 방법으로 보총의 약통물개도 고치고 격침도 수리하였다. 나중에는 기관총까지도 척척 재생시켰다. 병기부문 일군들 중에는 박영순, 손원금, 강위룡, 박두경, 송승필, 강해산과 같은 재간덩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바늘에 구멍을 내는 재간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 모든 기적의 비결이 바로 자력갱생에 있었다. 만일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처음부터 남의 나라 공산주의자들

송승필

에 대한 환상에 포로되어 자력갱생할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고 조선을 구원할 길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유격구에는 애당초 병기창이라는 것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나무포와 연길폭탄과 같은 위력한 무기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독립군들처럼 인민들에게 군자금을 내라고 호소하든가 동냥자루를 메고 남의 나라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구걸도 하고 그 무슨 하소연도 하였을 것이다. 구걸을 하느라면 남들에게 굽실거리게도 되고 남들이 발바닥을 핥으라면 발바닥을 핥고 눈꼽자기를 뜯어달라고 하면 눈꼽자기를 뜯어주는 비루한 속물이 되고 만다.

우리가 항일전쟁의 초기부터 자력갱생의 구호를 내걸고 그 관철을 위해 분발한 것은 당시 혁명 앞에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도 부합되는 것이였다. 일제의 만주침공은 조일, 중일간의 모순을 격화시켰고 이 모순은 불피코 조선공산주의자들 앞에 무장투쟁이라는 높은 형태의 투쟁과제를 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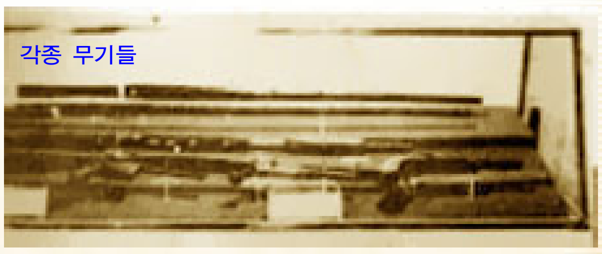
만일 이런 때에 우리기 자력갱생에 의거하지 않고 남의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구걸외교에 매달렸더라면 우리는 일제의 만주강점 직후 그처럼 빨리 항일전쟁을 시작하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우리의 유격대오는 불과 몇해 사이에 강력한 역량으로 자라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자력갱생은 자주, 자강의 기초위에서 민족자력에 의한 나라의 독립을 갈망하는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구호였다. 인민이 이 구호를 제때에 받아물고 도처에서 야장간을 병기창으로 전환시키거나 새로운 무기수리 기지들을 창설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는 비단 병기생산과 수리분야 뿐만 아니라 항일혁명의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기본정신으로 되었으며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되었다. 아무리 애국심이 강하고 공산주의사상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지 않으면 실속있는 혁명가로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력갱생을 하는 여기에 혁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기본고리가 달려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난날 민족운동 지도자들이 윌슨의 민족자결론에 현혹되어 외세의존의 길로 줄달음친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자력갱생의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연길현의 의란구에는 남양촌이라는 마을이 있다. 추


각종 무기들

수, 춘황투쟁 후 일본군경들은 이 마을에 달려들어 무고한 주민들과 청장년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집들은 잿더미로 만들었다.

남양촌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동하였다.

소왕청유격구의 병기창

≪우리들은 비폭력적인 정치투쟁을 하는데 놈들은 무기를 쓰고 있다. 맨주먹으로는 적을 타승할 수 없다. 총검을 들고 일제와 맞서서 판가리싸움을 할 때는 왔다. 동무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때 한 청년이 주먹을 흔들면서 말했다.

≪쇠붙이를 모아서 창이라도 만들자. 창만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적들을 찔러죽이고 총을 빼앗을 수 있지 않는가.≫

그 청년은 대장장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태순노인의 아들이었다. 그는 자기 집 헛간에 아버지가 쓰던 야장도구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칼이나 날창같은 것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말하였다.

청년들은 그 말에 대뜸 호응하였다

≪옳다. 창과 검부터 만들자. 그 다음에는 그 창과 검을 총으로 바꾸자.≫

이태순노인이 농쟁기를 벼리던 그 망치와 집게로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잘 미치지 않는 골짜기에서 박달나무 뿌리로 숯을 굽고 달구지 바퀴테를 벗겨다 창을 버렸다. 단야공정을 거친 창들은 돌에 대고 갈아서 날을 세웠다.

동구밖에서 울리는 난데없는 망치소리는 야장일에 인이 박힌 옛 대장쟁이를 골짜기로 불러냈다. 청년들은 치던 창을 풀 숲에 치워놓고 부시는 만드는 체하였다.

≪무얼 만드느냐?≫

이태순노인은 미심쩍은 눈길로 청년들을 둘러보았다.

≪부시를 만듭니다.≫

청년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하였다.

≪할 짓도 없군. 메를 이리 다구.≫

노인은 눈깜짝할 사이에 부시 열 개를 쳐주고는 야장도구들을 빼앗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노인이 밭으로 나간 사이에 청년들은 그 야장도구들을 다시 들어내다가 날창을 버렸다.

≪이 녀석들아, 어제 쳐준 부시는 어떻게 하구 또 이 짓들이냐?≫

벽도 지붕도 없는 청년들의 야장간에 이태순노인이 전날처럼 기척도 없이 나타나 엄하게 물었다.

≪동무들한테 다 빼앗겼습니다.≫

아들이 일동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었다.

이런 일은 그후에도 여러번 반복되었다. 이태순노인은 청년들이 만드는 물건이 부시가 아니라는 것을 인차 간파하였다. 농번기에 마을 청년들이 부시나 만들자고 야장일을 벌여놓았겠는가 무더운 여름날 강냉이밭 고랑을 타고 누구도 모르게 나타난 노인은 청년들이 아들한테서 기술전습을 받아가며 창을 벼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놈의 자식들, 봄내 여름내 무슨 꿍꿍이를 하는가 했더니 제 죽을 잡도리들을 하는구나.≫

노인이 야장도구들을 주섬주섬 걷어모으며 야단법석을 하자 급해맞은 청년들은 그의 옷섶을 매달려 손이야 발이야 하고 빌었다.

≪아버님, 놈들이 청년들을 만나기만 하면 파리잡듯이 자꾸 잡아죽이는데 우리가 올방자를 틀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말문이 막히 이태순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을 가다듬다가 무게있게 말했다.

≪내가 집게질을 할테니 너희들은 메질이나 해라. 그리구 망을 잘 봐야겠다.≫

그날 노인은 10여 명이나 되는 청년들에게 창을 한 자루씩 만들어주었다.

그런데 이웃마을 청녕들이 잡쇠붙이들과 못 쓰게 된 달구지 바퀴테들을 가지고 와서 그 창들을 모조리 바꾸어갔다. 야장이 없는 이웃을 위해서 선심을 베풀라는 것이었다.

이태순노인은 떡쇠로는 창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쇠붙이들을 모조리 밭고랑에 내던지게 하였다. 그 대신 자기가 감추어두었던 팔모정 수십 개를 가지고 고강도 단도와 창을 수십 개나 만들어주었다.

20여 명의 남양촌 청년들은 노인이 벼려준 창과 단도를 가지고 연길에서 구룡평 쪽으로 이동하던 위만군의 소부대를 습격하여 많은 무기와 탄약을 노획하였다.

이태순노인은 흐뭇한 심정으로 마을청년들의 전과를 치하했다. 그의 주관하에 남양촌의 비밀야장간은 그후에도 많은 도창무기들을 만들어냈다. 나중에는 작탄까지 생산하였다. 노인은 전심전력으로 병기 생산과 수리를 하다가 적들에게 잡혀 희생되었다.

이것은 자력갱생의 생활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자력갱생은 이처럼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투쟁사에서 처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다. 이 생기발랄한 시대상은 인민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동시켜 세상만사를 다 풀어나가는 공산주의적 방법이 정당하고 위력하다는 것을 실증해주는 산 화폭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자력갱생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투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였으며 자력갱생을 떠나서는 주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논할 수도 없었다. 도대체 조선혁명의 발전에 대해서 상상할 수도 없었다. 자력갱생만이 우리 인민의 근대 정신생활에서 큰 질곡으로 남아있던 사대주의를 종국적으로 추방하고 자주, 자강, 자립의 이념밑에 민족재생의 활로를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였다. 자력갱생은 주체가 선 인간과 주체가 서지 못한 인간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되어 있었다.

(내일 계속)

김정일영도자

-네팔인사 데 파아셰 샬리마-

김정일영도자
그분은 인류에게 새 아침을 안겨주신 분
그분을 우러러 하늘과 땅, 강들도 설레인다

김정일영도자
그분은 희망과 신념의 상징
인덕의 화신
새 시대를 안아오신 분
그분은 인류의 행복
아름다운 세계의 등대

김정일영도자
그분은 창조로 한평생을 빛내이시는 분
순간 순간을 조국의 융성번영에 바치시는 분
온갖 시련 한몸으로 막아내시며
반제투쟁의 앞장에 서 계시는 분

김정일영도자
그분은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불세출의 영웅
비범한 기질을 이어받으신 분
그분은 침략의 무리 짓부수고
세계역사를 승리하시는 분

만민이 그분을 받들어 모시고
온 세상이 환호하며 그분을 우러르네
그분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영도자
민중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시는 분

김정일영도자
그분은 저 하늘에 밝은 별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
자주의 기치 높이 든 민족의 신이시어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를 모신 조선인민은 참으로 행복한 인민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조선영화상영주간 개막식과 영화감상회가 있었다.

조선영화상영주간 개막식과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오늘의 평양≫, ≪숭고한 염원을 지니시고≫,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상영되었다.

리비아학생총대회 총 서기는 영화를 보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각하께서는 비범한 영도력과 인자하신 인품을 지니시고 조선인민을 보살피시고 영도하고 계신다.

조선인민의 위력한 힘, 강한 조직력과 혁명성은 위대한 지도자를 모시고 있음으로 하여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위대한 지도자는 거대한 힘을 낳는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를 모신 조선인민은 참으로 행복한 인민이다.

요르단민족대학 학장은 영화를 보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은 전후 빈터 위에서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조선의 발전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영화를 통하여 우리는 조선인민의 위력과 근면성을 알게 되었다.

조선인민이 이룩한 모든 성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영도의 결과이다.

조선인민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그 무엇도 조선인민의 불패의 위력을 꺾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선의 통일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르완다국립종합대학 교무부총장은 영화감상회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김정일**각하는 절세의 위인들이시고 탁월한 영도자들이시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그렇듯 정치 사상적으로, 문화 예술적으로 훌륭히 진행될 수 있은 것은 그분들께서 축전준비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었기 때문이다.

평양축전은 축전운동역사에서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을 뿐 아니라 세계청년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었다.

르완다 브따레도 후이에리장관은 영화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 폐막 행사는 한마디로 말하여 종합적인 예술공연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훌륭한 예술을 보았다.

조선인민은 재능 있고 훌륭한 인민이다.

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이다.

세계1등급의 5월1일경기장, 105층의 유경호텔, 30~40층의 살림집들, 어느 것이나 다 세상에 널리 자랑할 수 있는 대 기념비적 건축물들이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영도를 받는 조선인민만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역사 강좌 제6회
김중위선생 - 주체91, 5월 19일

화성의숙에 입학해서 혁명활동을 시작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화성의숙에 입학해서 혁명활동을 시작하신데 대해 강의했습니다. 사상과 방법에 뒤떨어진 화성의숙의 교육실태에서 환멸을 느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을 결심하시고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셨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나는 새로운 방법으로 조국광복의 길을 개척해야 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 혁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당시 우리나라 반일투쟁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셨습니다. 당시 일부 민족주의 운동자들은 극소수유산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왕조사조를 복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권회복에 대해서 떠들고 있었는가 하면 또, 일부 운동자들은 사대주의에 물젖어가지고 자기 민족의 힘이 아니라 큰 나라의 힘을 빌려서 독립을 달성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공산주의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제각금 자기들을 정수분자라고 하면서 자기 주위에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의 이러한 실태를 분석하신데 기초해서 민족주의 운동자들이 초기공산주의 운동자들과는 다른 새로운 투쟁의 길을 찾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는 상층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중적 운동으로 그리고 그 어떤 외부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민 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조선의 진정한 독립을 달성할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찾으신데 기초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마련하는 사업에 마련하는 사업에 큰 힘을 넣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의 핵심역량을 마련하자면 사대주의, 종파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참신한 새세대 공산주의자들을 키워야 한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세대 공산주의자들을 키우는 사업을 화성의숙의 청년학생들 속에서부터 진행하셨습니다. 화성의숙의 청년학생들은 비록 부르주아 민족주의 영향밑에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대부분이 노동자와 농민 출신자로써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해서 투쟁에 나선 열혈청년들이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을 새로운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투쟁 속에서 단련시키면 얼마든지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런데로부터 화성의숙 안의 청년학생들에게 노동계급의 선진사상을 정력적으로 해설해 주는데 큰 힘을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화성의숙에서는 공산주의 서적을 제일 경계하고 있었고 경중에 따라 퇴학 처벌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새사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계하거나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통제를 한다고 해서 읽고 싶은 책도 읽지 않으면 앞으로 큰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시면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책은 퇴학을 시킨다고 해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학생들 속에서는 공산주의 서적을 읽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얼마후에는 새사조를 동경하는 사람이 걷잡을 수 없는 힘으로 화성의숙을 휩쓸게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속에서 진보적인 청년학생들로 읽은 책에 대한 토론회를 자주 조직하셨습니다. 한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학생들과 목적의식적으로 접촉하시면서 생사고락을 같이할 혁명동지들을 하나하나 선발하셨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함께 개척해 나갈 핵심역량을 마련해 나가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의 핵심역량을 마련하신데 기초해서 강력한 혁명의 전위조직을 내오기 위한 활동을 벌리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1926년 9월말에 동지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고 혁명의 전위조직을 내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를 광복하자면 광범한 대중을 불러일으켜야 하는데 그러자면 그 전위조직을 먼저 내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조직 성원이 될 만한 대상들을 정한다음 아무개는 누구를 맡아 교양하고 아무개는 또 누구를 맡아 교양한다는 식으로 분공 조직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부 동지들이 장차 새로운 조직을 내오게 되면 또 하나의 파가 생기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들에게 우리가 만들려는 조직은 민족주의자들이나 초기공산주의자들의 분파와는 전혀 다른 새형의 혁명조직이라고 하시면서 그 조직은 파쟁을 하자는 조직이 아니라 오직 혁명을 하자는 조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로 내오시려는 조직은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혁명을 앞장에서 개척해 나가는 전위조직이고 혁명역량의 핵심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새형의 혁명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하신데 기초에서 새조직을 내오기 위한 예비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예비회의는 당시 중국의 국경절인 쌍십절 즉, 10월 1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직의 명칭과 성격, 투쟁강령과 활동규범들이 토의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때로부터 3주일 후인 주체15, 1926년 10월 17일 새로운 혁명의 전위조직인 타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는 모임에서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라는 역사적인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보고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셔 처음으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노작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타도제국주의 동맹은 어떤 조직인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주셨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명실공히 제국주의를 타도할 것을 자기 사명으로 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 강령에서는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할 것을 당면과업으로 내세워야 하며 최종목적으로 조선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할 것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명실공히 제국주의를 타도할 것을 자기 사명으로 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 강령에서는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할 것을 당면과업으로 내세워야 하며 최종목적으로 조선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할 것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문자 그대로 제국주의 일반을 타도하자는 조직입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당면과업은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의 광복과 독립을 이룩하는 것이고 최종목적은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나아가서는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이였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그 어느 당파에서 갈라져 나온 조직도 아니고 또 거기에 망라된 성원들도 지난 시기 종파에 가담했었거나 망명단체에 가입했다가 떨어져 나온 사람들도 아니였습니다. 타도제국주의 동맹은 반제, 독립, 자주의 이념 밑에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새세대 청년들의 역사의 진통속에서 창조한 참신한 새형의 정치적 생명체였습니다. 이 조직에 망라된 성원들로써는 최창걸, 김리갑, 리제우, 강평성, 김원우 박근운등을 들 수 있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조선혁명 발전에서 참으로 커다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됨으로 해서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은 사대주의, 종파주의, 교조주의 오염된 낡은 세대와 결별하고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해서 지도되는 새로운 역사적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자주성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또한, 우리나라에서 새형의 당인 주체의 형의 혁명적 당을 창건하는 투쟁에서 출발점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당의 뿌리 되었습니다. 그 뿌리에서 우리 당의 강령이 태어나고 당건설과 당활동의 원칙이 마련되고 당창건의 골간이 육성됐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찾으시고 그것을 함께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핵심역량을 마련하시고 혁명의 전위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심으로 해서 조선혁명은 새로운 역사의 시대, 주체혁명위업을 실현해 나가는 장구한 투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2번에 나누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활동을 개시하시고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데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세대 공산주의자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신데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제18회
임경수선생 - 주체91, 5월 20일

인민적인 선거제도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우리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 인민대중이 누리고 있는 혁명적인 정치조직생활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알 수 있은 것처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그리고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일정한 정치조직에 망라되서 혁명적인 정치조직생활을 하고 그를 통해 값 높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정치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의 표현의 하나인 인민적인 선거제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선거제도는 해당 국가 사회제도의 본질과 성격, 계급적 역량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제도가 어떤가 하는 것은 해당 국가가 인민대중을 국가주권 실현에 어떻게 참가시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인민대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모든 주권행사와 국가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고 있으며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리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빛내어 나가시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국가의 주권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라고 할 때 그것은 국가주권기관에 보낼 근로인민의 대표들을 선거할 권리와 자신이 그러할 대표로 선거받을 권리로써 인민대중을 국가주권행사에 참가시키는 기본형식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가주권을 행사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진정한 대표들을 선출해서 각급 주권기관 그리고 주권행사를 통해 자기들의 의사를 반영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자기들을 국가주권의 실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담보해주는 이 권리를 매우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에서 공민들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는 가장 우월하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에 의해 확고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적인 선거원칙들을 확고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모든 공민들이 국가주권의 행사에 널리 참가하도록 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 평등적 원칙에 따라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한 인민대중이 누구나 다 평등한 자격을 가지고 아무런 제약 없이 국가주권기관 선거에 참여하고 있고 또, 선거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민들은 일반적 선거원칙에 따라 어떠한 제한도 받음도 없이 각급 주권기관 선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만 17살이 되면 공민이 되고 또 모든 공민들은 국가기관 선거에 자유롭게 참가할 권리를 가집니다. 아시다시피 선거양식에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표징의 하나에는 선거연령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들과는 달리 선거연령을 낮게 만17살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정치생활에 민감한 청년들이 자주적인 인간으로서 국가주권의 실현에 널리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가 공민들로 하여금 주권의 주인으로써 국가주권행사에 일찍이 참가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우월한 제도이고 특히,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청년들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제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자라난 우리 청년들의 정치적 의식수준이 그 어느 나라 청년들보다 비할 바 없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거 원칙에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표징의 다른 하나는 군대에 복무하는 군인들에 대한 선거권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군대를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보는가 단순한 폭력의 도구로 보는가 하는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는 군인들의 선거권 문제는 서로 다르게 규정됩니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이룩하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 조직된 우리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근로인민대중이 진정한 인민의 주권을 공고히 하는데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주권의 당당한 주인입니다. 따라서 국가주권의 당당한 주인인 인민군 군인들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청년들과 인민군 군인들은 아직 그 어느 나라 청년들과 군인들도 일찍이 가져본 적이 없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선거권을 가지고 국가주권행사에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에서 공민들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는 가장 우월하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에 의해 확고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적인 선거원칙들을 확고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모든 공민들이 국가주권의 행사에 널리 참가하도록 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 평등적 원칙에 따라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 및 평등적 선거원칙 이외에 직접적 및 비밀투표의 원칙에 따라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원칙에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표징의 또 하나는 선거에서 그 어떤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거에 돈이 들면 근로인민대중은 선거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가 진정으로 민주주의적으로 되자면 개인이 드는 선거비용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비용이 적을 뿐 아니라 그것을 전부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줍니다. 때문에 그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선거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선거받는 사람은 돈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과 수령에게 얼마나 충실하고 조국과 인민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는가 얼마나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가에 의해 평가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평범한 노동자들과 농민, 지식인들 말하자면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한 성실한 사람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는 일반적 선거 원칙과 함께 모든 근로자들이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오직 한표만 투표할 수 있는 평등적 선거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근로대중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국가주권행사에 다같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인민대중에 의한 주권행사가 원만히 보장되자면 선거에 다 같은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는 평등적 선거원칙이 확고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자들 중 그 누구에게도 다른 선거자들보다 우월한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모든 공민들 사이, 남성과 여성, 군인과 일반 공민들 사이 그리고 직위여하에 관계없이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음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주권행사에 평등하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다 같이 주권의 주인으로서 공동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높은 정치적 열의와 창발성을 내어 국가주권행사에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 및 평등적 선거원칙 이외에 직접적 및 비밀투표의 원칙에 따라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 선거원칙의 철저한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자들이 선거표를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출장 및 유원 중에 있는 인민들에게는 선거이동증을 발부하며 병원, 요양소 주요 역들에는 특별선거분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구자, 노쇠자들을 위해서는 이동 선거함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선거날에는 국가적으로 휴식하게 되여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모든 선거자들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주인인 근로인민이 국가주권의 실현에 참답게 참가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주권행사에서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하기 위해 선거장소를 비밀실로 하고 투표한 사람밖에는 그 누구도 선거하는 방에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한 합리적인 선거의 조직과 실시절차들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와 주권의 실현에 빠짐없이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튼튼히 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권을 가지는 모든 공민들을 선거자 명부에 정확히 등록하고 선거날 전에 그것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화국 북반부 전 지역을 일정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로 나누며 선거자들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주지를 단위로 선거분구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선거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한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들로 선거위원회를 조직함으로써 근로자들 자신이 국가주권기관 선거의 적극적인 조직자, 감독자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권기관의 조직과 구성에서 인민대중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정당, 사회단체, 각 기관 기업소의 정부회의 주민회의 및 인민군 군무자 회의들에서 대의원 입후보자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결과 확정에서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들과 함께 출판보도 대표들을 널리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서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주권행사에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마련된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가 있어 오늘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인민으로 높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지고 국가주권행사에 적극 참가하는 슬기롭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습니다.

그럼 이 시간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정치생활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가운데서 여성들의 사회정치적 평등의 실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노농대중은 통일의 기관차가 되자

그럼 이번에는 ≪노농대중은 통일의 기관차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나눠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조국통일운동은 민족자주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서게 되었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기운은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같은 현실은 이 땅에서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주력부대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노농대중으로 하여금 통일의 기관차가 돼서 통일운동을 힘있게 이끌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김현규 :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후 노동자, 농민들의 통일운동진출은 더욱 적극화되었습니다. 우리 노동자, 농민들은 지난해 분단사상 처음으로 되는 남북노동자, 농민들이 각각 한데 모여 통일대회와 축제들을 성공적으로 치루어냈습니다. 노농대중이 통일운동에 적극 나섬으로써 통일운동은 더욱 고조되면서 통일을 향해 한걸음 성큼 내짚은 거죠. 지금 노농대중은 통일운동에서 노동자, 농민이 앞장서야 통일의 새 아침도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다는 시대와 민족의 부름에 적극 화답해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자 : 일반적으로 노동자, 농민들은 투쟁에서 다른 계급이나 계층과 다른 자기의 특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목숨까지 바쳐야할 뚜렷한 명분이 있으면 주저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완강한 전투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노동자, 농민들이 아닙니까. 이 위력한 힘, 강력한 투쟁력은 무엇을 위해 발휘돼야하겠는가 하는 건데요. 그건 마땅히 우리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표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큰 힘을 가진 노농대중이 통일운동을 이끄는 위력한 통일의 기관차가 되어야 하는지 그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김현규 : 그건 우선 노동자, 농민이 이 땅에서의 자주, 민주, 통일실현투쟁의 주력군이기 때문에 마땅히 앞장에 서서 통일운동을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대중운동에는 여러 계급계층이 참가하지만 여기서 노동자계급은 영도계급으로써 주력군편성에서 핵심적인 계급으로 된다는 겁니다. 노동자계급은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가장 자주적인 계급이며 또 현대산업체계속에서 생산적으로 한데 모여있고 집단적으로 단련된 힘을 갖고 있는 가장 창조적이고 힘있는 계급입니다.
사회자 : 그러므로 노동자계급이 없는 주력군편성이나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없는 통일운동에서의 승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겠죠. 옳은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함께 농민들도 노동자와 어깨 겯고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주력군으로 당당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농민들도 마땅히 노동자와 함께 통일운동의 주역이 돼서 통일의 기관차가 돼야 하는 거죠.
김현규 : 그렇죠. 투쟁력과 견인력에 있어서 누구보다 강한 노농대중이 통일의 기관차가 되어 통일운동을 이끈다면 민족자주의 궤도를 타고 이 땅의 통일운동은 질풍같이 내달릴 겁니다. 그리고 노농대중이 통일운동을 이끄는 통일의 기관차가 되어야 하는 건 노동자, 농민이 주민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고 또 어느 계급계층보다도 조국통일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들이 적극 떨쳐 일어나야 통일운동이 보다 힘있게 추진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자 : 그리고 노동자, 농민들은 어느 계급보다도 분단으로 불행과 고통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도 노동자, 농민들이 가장 많고 또 미국을 비롯한 외세와 그 주구배들의 반국민적인 체제유지와 반통일전쟁책동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노동자, 농민들이 가장 많이 지고 있죠.
김현규 : 그렇죠. 노동자, 농민들이 사회정치적으로 받는 고통도 누구보다 큽니다. 따라서 노농대중이 어느 계급계층보다 통일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갖고 과감히 ******* 고 그 실현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노농대중은 앞서 얘기가 된 이같은 이유로해서 마땅히 통일운동에서 주력이 되어 누구보다 앞장에서 싸우는 통일의 기관차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회자 : 민족분열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노농대중인걸로해서 통일이 누구보다도 절박한 거죠. 통일에 노농대중이 살 길이 있고 민족이 번영하는 길이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자, 농민들은 너도나도 6.15공동선언을 높이 치켜들고 통일의 기관차를 힘있게 몰아가야 할겁니다. 이렇게 될때만이 통일운동은 힘차게 추진될 것이고 민족의 세기적 숙망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될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0일~21일

≪한국전쟁때 미군은 범죄행위를 했다≫

전민특위 국제조사단 하인즈 단장, 국내 조사 소감에서 밝혀

레녹스 하인즈 단장

≪나는 변호사다. 오늘 증언을 들어보면 미국은 명백하게 국제적인 범죄행위를 했다. 미군은 1949년 제네바협정을 어긴 행위를 했다. 비무장 시민을 폭격하고 살해한 것에 대해 최소 한도라도 피해보상이 있어야 한다. 미국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국제민주법류가협회에 이 같은 사실을 널리 알리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전민특위(미군 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 복특별조사위원회) 국제조사단을 이끌고 20일부터 25일까지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레녹스 하인즈(Lennox S. Hinds) 단장이 한 말이다.

이번 국제조사단에는 하인즈 단장을 비롯해, 셰론 아이링(Sharon Aling), 조지 카치아피카스(George Katsiaficas), 언지 주기(Unsie Zuege) 씨가 참여했다. 하인즈 단장은 뉴저지 루터스 대학 법학교수이며,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유엔상임대표, 넬슨 만델라 변호인 등으로 있으며, 6.23 코리아 국제전범재판의 검사로 참석하기도 했다.

아이링 씨는 국제행동센터 공동대표로 있고, 카치아피카스 씨는 보스톤 웬트워드 공과대학 교수이며 5.18 광주항쟁에 대해 집중 연구하고 있다. 주기 씨는 한국인 2세로 전직 기자 출신이다.

카치아피카스 씨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범죄자다. 한국전쟁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치러진 전쟁이다≫라고, 주기 씨는 ≪어머니로부터 한국전쟁 때 당한 고통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픔을 실감할 수 있겠다. 미국에 돌아가서 진상을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민특위는 ≪한국전쟁 시기에 미군이 감행한 학살만행 진상과 약탈, 파괴 행위를 전국적 범위에서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을 책임지고 맡아야 한다≫고 보고 결성되었으며, ≪미군이 한반도에서 감행한 범죄행위를 공동명의로 세상에 공개하며 미국 정부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면 국제기구들에 제소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국제조사단의 조사에는 정유미 전민특위 사무부총장, 한민족유럽연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경남지역 조사에는 ≪한국전쟁 중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경남도대책위≫ 정양덕 간사가 안내를 하기도 했다.

이들 국제조사단은 지난 17일 입국, 광주에 도착해 5.18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전국연합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19일에는 망월동을 참배하기도 했다. 20일에는 전갑길 국회의원과 면담했으며, 전남 영광 불갑산 학살지를 답사하기도 했다.

국제조사단은 25일까지 국내에 머물면서, 경남의 사천 의령 함안, 경북의 포항 경산, 대전, 노근리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21일 아침 사천 조장리에 도착해 주민 10여 명으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이들 국제조사단은 사천 조장리 사건과 마곡리 사건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 조장리 사건은 1950년 8월 2일 발생했다. 조장리 앞 하천제방에서 주민 300여 명이 피난하고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이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흰옷을 입고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양민으로 알고 미군이 총을 쏘지 않을 것≫이라며 하천 제방에 모이자고 했다. 산으로 들로 피해 있던 주민들이 이곳에 모여든 것이다.

7월 29일부터 폭격이 진행되었고 이 당시의 폭격으로는 주민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고 가옥만 소실되었다. 그런데 8월 2일 점심때쯤 되어 미군 정찰기 2대가 날아가고 난 뒤 30여 분쯤 지나 미군 폭격기 4대가 나타나 폭격과 기관총 사격을 가하여 150여 명의 주민이 죽거나 다쳤다.

마곡리 사건은 1950년 7월 31일 정오쯤 발생했다. 마곡리 앞 하천제방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피난을 나와 점심을 먹고 있던 중 미군 전투기(≫쌕쌕이≫라 불렀던 F54기) 4~5대가 갑자기 나타나 주민들을 향해 약 30분간에 걸쳐서 무차별적으로 기관총 사격과 폭격을 가해 강남덕(당시 17세) 씨의 아버지와 3명의 동생 등 1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었다.

조장리와 마곡리 주민 10여 명이 마을 앞 하천 앞에 나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자 강남덕(69) 씨는 이날 증언에서 ≪많은 가족을 잃었다. 미국은 반드시 한민족을 도와주어야 한다. 국제조사단이 우리나라의 피해 현장을 골고루 돌아보고 진상을 꼭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리와 팔에 부상을 입은 강화석(68) 씨는 국제조사단원들에게 상처를 내보이기도 했다. 강 씨는 미군의 폭격으로 부상을 입었는데 손목이 움푹 파여 있고, 발목은 아직도 상처로 고생을 하고 있다. 진물이 나는 바람에 붕대를 감고 다닐 정도다. 그는 조사단원들에게 붕대를 풀어 설명하기도 했다.

국제조사단을 대표해서 주기 씨가 인사말을 했다. 한 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그는 눈물을 보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나이 45살이다. 한국인이었는데 한국말을 못해 미안하다. 어머니는 한국전쟁을 경험하고는, 그 아픔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나 실감이 나지 않았다. 오늘 증언을 들어보니 실감이 난다. 한국사람으로 더 깊은 아픔을 느낀다.≫

윤성호 기자
2002/05/22 오마이뉴스

21일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지신밟기 열려

21일(화) 서울 한복판에서 지신(땅을 맡은 신령)을 달래고 복을 비는 민속놀이 ≪지신밟기≫가 펼쳐졌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운동본부(운동본부)≫가 ≪지신밟기≫를 통해 용산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홍보하고 나선 것이다.

놀이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부근에서 보광동 신동아아파트에 이르는 보광동일대에서 이루어졌다. 주민들은 갑작스런 농악대 출현과 때아닌 지신밟기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으나 운동본부측의 설명을 듣고 음료수를 따라주면서 격려하는 등 공감을 나타냈다.

운동본부측은 용산 미군기지와 가장 근접한 곳에서 살고 있는 보광동 주민들의 자택을 방문하면서 ≪집집마다 숨어있는 주한미군의 악귀가 물리쳐서 장사 잘 되고 복 많이 오기≫를 기원했다. 더불어 오는 26일(일) 이촌한강시민공원에서 있을 ≪미군기지반환을 위한 평화콘서트 – 열심히 버틴 당신 이제 떠나라≫를 알렸다.

또한 부시얼굴을 한 미군이 한국 국민에게 독극물 등으로 고통을 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최근의 호화 아파트와 영화관 건립, 차세대 전투기 선정의 부당성등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주민들에게 선전했다.

이 날 ≪지신밟기≫는 또 다른 형태의, 주민 나아가서는 시민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홍보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았다. 실제로 보광동 주민들은 장사를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가게 밖으로 나와 행사 내용 자체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몇몇의 주민은 농악대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행사 한 참석자는 ≪주먹을 쥐고 으싸으싸하는 것보다 어쩌면 주민들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민속놀이가 더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대현 백영순 기자
2002/05/22 유뉴스

이문옥 ≪득표가 아니라 당선이 목표≫

≪평등 기반한 공공성 확보≫ 정책 제시

≪몇 퍼센트(%) 득표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선되기 위해 출마하는 것입니다.≫

21일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자청한 민주노동당 이문옥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은 낙하산식 관료와 엘리트, 재벌과 이윤모리배들의 것이었다≫며 ≪서울을 노동자 서민의 것으로 돌려 놓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4개의 정책과 12개 공약을 내 놓았다. 또한 경쟁상대인 나머지 4명의 후보들에게 ≪시민회계감사제도 도입, 미 대사관 숙소 신축 반대, 공무원 노조 인정≫등 3가지 사안에 대한 공동실천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내걸고 있는 4대 기본 정책은 서울을 ≪참여의 도시, 평등의 도시, 공공의 도시, 생태와 역사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 이를 위해 강남북 지역격차, 남녀 성차별,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는 평등정책을 내걸고 장기 임대주택 대량공급, 학교급식 무료제공등 공공성을 강화시켜나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 밖에도 용산미군기지 반환, 박정희 기념관 반대등 ≪서울시에서 벌어지지만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큰 문제도 해결하겠노라≫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의 이런 정책은 일단 ≪현실적이냐?≫는 공격을 받고 있다. 정책발표회에 참석한 기자들이 ≪대부분 엄청난 예산이 드는 공약들인데 어떻게 자금을 확보할 생각이냐? 용산미군기지 반환문제를 서울시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예산확보는 담배세를 구세로 돌리고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는 등 조세정책을 개혁하고 방만한 서울시 경영을 축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장 박정희 기념관, 강남순환고속도로등의 사업을 폐지하게 되면 얻어지는 자금도 만만치 않다는 주장.

또한 용산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서울시 단독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을 인정한다≫며 ≪이 공약은 민주노동당 차원의 정치적 공약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상대적으로 타 후보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과 관련 ≪언론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서고 인터넷등 대안적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2002/05/21 디지털말

진보후보 외면, 알권리 빼앗는 것

잇단 초청토론회 진보후보 외면에 진보정당 반발

최근 각 언론사의 지방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에 진보정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의 후보들을 제외하면서 진보정당 관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KBS가 주최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이문옥씨가 제외된 점에 대해 토론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원에 제출한 민주노동당은 ≪KBS가 토론자를 민주당과 한나라당 후보로 국한시킨 것은 이문옥 후보가 후보자로서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권,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한국기자협회 인천.경기지역 협회(협회장 정일형, 경기일보 기자)에서 주최한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가 김준기 민주노동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제외한 채 진행이 되어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토론회를 준비한 기자협회측은 민주노동당 후보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 ≪후보자가 난립할 우려가 있어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후보만을 초청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준기 후보측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기도지사 후보 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이는 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후보 등 세 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후보를 제외한 채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했다.

김준기 후보측은 토론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기자협회측과 참석가능성 여부에 대한 타진을 했으나 끝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김준기씨는 토론회가 시작되기 직전 긴급발언을 통해 ≪나를 제외하고 토론회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기자협회측이 진보후보를 제외한 것은 언론의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이것은 보수언론이 갖는 한계성이라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한겨레에 실은 ≪진보 정당과 방송≫이라는 칼럼에서 ≪최근 방송사들이 6 · 13 지방선거 관련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군소정당 후보들을 배제하는 건 방송법은 물론,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라며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방송법 제6조 5항은 괜히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놓은 게 아니잖은가≫라고 언론의 태도에 대해 질타하기도 하였다.

김경환 기자
2002/05/22 오마이뉴스

민주노동당 김석준 부산시장 후보, 범시민후보로 추대

부산지역 시민 노동 농민 학생 종교 학계 여성계 138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범시민후보 추대위원회≫는 22일 광장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동당 부산시장 후보인 김석준 부산대교수를 범시민후보로 추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범시민 추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참여민주주의 확대 ▲진보성과 개혁성 ▲정책평가 및 대안제시 능력 ▲도덕성과 헌신성 ▲지역 및 시민대표성 등의 선정기준에 김후보가 부합돼 시민후보로 추대하게 됐다고 선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범시민후보 추대위원회는 김후보를 부산시장 범시민후보로 결정한데 이어 1만명의 시민추대위원들과 함께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김 후보는 오는 24일 발족하는 선거운동본부에 민노당 박순보 부산시지부위원장과 함께 박건일 전국소형어민총연합 회장, 박상봉 부산농민회 회장, 이성우 부산연합 공동의장, 정의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 손현숙 교수 등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영입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이들 선대본부장을 중심으로 각 단체를 지지세력화하고 일반시민 유권자들에게도 시민후보로서 도덕성과 참신성 등을 적극 알려나갈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는 22일 오후 7시 30분 국제신문사 4층 대강당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갖고 지난해부터 전 당원에게 나눠준 돼지저금통(일명 진보돼지)를 회수해 정치자금을 조성한다.

조정호 김상현 기자
2002/05/22 연합뉴스

김대중 편집인 IPI발언 규탄대회

언론노조, 22일 오후 조선일보 옆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 위원장 김용백)소속 100여 명의 조합원들은 22일 낮 12시 조선일보 주변에서 지난 11일 국제언론인협회(IPI) 총회에 참석해 ≪조 · 중 · 동이 좌파적 신문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발언한 조선일보 김대중 편집인을 규탄하는 ≪조선일보 편파왜곡보도 및 IPI 망언 규탄대회≫를 갖고 조선일보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민언련 성유보 이사장은 ≪IPI총회에서 조선일보 김대중 편집인의 발언을 보며 참담함과 비애감을 느낀다≫며 ≪이 발언은 조선일보 언론 사주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제 조선일보가 죽느냐 사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조선일보의 선택≫이라며 ≪앞으로 조선일보가 한국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감시하자≫고 역설했다.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이재국(경향신문지부 위원장) 의장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 신문이 조선일보≫라며 ≪좌파적 신문 운운한 김대중 편집인은 퇴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언론노조 현상윤 부위원장은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를 폭도로 규정하고 일본 총독부 시녀 노릇을 했던 조선일보가 또 다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IPI총회의 김대중 발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언련 이유경 부장은 참석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최근 조선일보 김대중 씨는 국제회의에서 한국언론에 대한 왜곡과 망언으로 국가 위신을 추락시켰고, 국내 언론인들을 국제적으로 망신시켰다≫며 ≪한국 전체 언론 종사자 앞에 공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날 김대중 편집인의 망언 사태와 관련해 조선일보측에 사과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의 제지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현상윤 부위원장, 이재국 경향신문지부 위원장, 임대호 한국일보 위원장, 정영환 조광출판 지부장, 안동운 조직국장 등 항의 방문 대표자들은 조선일보를 찾아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측 관계자의 욕설과 심한 제지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규탄대회가 끝나고 모든 참석자들은 조선일보를 향한 항의 가두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현지시각) 조선일보 김대중 편집인은 국제언론인협회(IPI) 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언론상황에 대해 ≪조선 · 중아 · 동아가 좌파적 신문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정부가 한국 역사상 가장 가혹한 언론탄압을 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언론사주와 광고주들

에게서 받는 압박은 정부 압력에 비하면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등 편파 · 왜곡 발언을 해 언론계 및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김대중 편집인의 이같은 망언은 그 동안 안티조선운동 등을 촉발시킨 편파왜곡보도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판단, 조선일보에 대한 언론 본연의 임무인 공정보도하라고 아울러 촉구했다. 또 언론인 임무를 망각한 조선일보 김대중 편집인은 언론계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조선일보를 인쇄했던 조광출판(주) 광주분공장의 위장폐업 10주째 광주에서 올라와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광출판 조합원들의 집단해고에 대한 조선일보가 즉각 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전국언론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은 하루속히 신문사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김철관 기자
2002/05/22 바른지역언론연대

이회창 ≪6.15선언 폐기 발언≫ 논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22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반도 통일방안을 담은 ≪6.15 남북공동선언≫ 2항의 폐기를 언급했다가 추후 발언을 정정하는 등 대북 강경론을 개진해 관심을 모았다.

이 후보는 당초 ≪6.15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게 1, 2 항이며 이중 2항은 결국 연방제 합의라는 지적이 있다. 6.15 정신을 살려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6.15 선언의 원칙과 정신을 살릴 것이나 2항은 그대로 갈 수 없으며, 분명히 짚고 정확히 해야 한다≫면서 ≪이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선언 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

그는 이에 대해 ≪연방제와 연합제가 공통성이 있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라고 계속 고집하면 합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러나 그는 토론회 말미에 이에 대한 질문이 다시 나오자 ≪대통령후보로 나온 사람이 2항을 바로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오만한 자세로 보이기도 할 것≫이라며 ≪폐기≫가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발언을 정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북이 계속 연방정부로 나간다고 할 때 이를 인정할 대통령이 있겠는가≫라고 반문, 공동선언 2항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남경필(南景弼) 대변인과 이종구(李鍾九) 특보는 이 후보 발언의 파장을 감안한 듯 ≪이 후보가 2항 폐기를 주장한 것이 아니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금강산관광특구 지정과 육로관광 실현 등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답방에 대해서도 ≪답방하게 되면 남북 신뢰구축을 위해 6.25 전쟁과 테러문제

등에 대해 사과나 해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표가 방북때 할 수있는 얘기를 왜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강경 입장을 개진했다.

나아가 그는 ≪김 위원장의 여러 행동을 보면 정상회담 뒤 많은 약속을 했으나 많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그러면 남북관계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영삼 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할 때 이북이 (나를) ≪김영삼의 삽살개≫라고 했다≫면서 ≪이북이 뭐라고 욕을 하든 우리는 원칙과 방향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대북 원칙론≫을 개진했다.

황정욱 기자
2002/05/22 연합뉴스

정세변화에 조응하는 전국적 관점의 새로운 전략전술(2)

최성원동지와 한호석소장의 최근논문의 비교연구

서론

1. 두 논문의 본질적 특징

2. 두 논문의 의의

3. 두 논문의 구성체계

4. 두 논문이 제출한 새로운 견해

 1) ≪이론문제≫의 새로운 견해

 2) ≪전략적 과업≫의 새로운 견해

5. 두 논문의 견해상 공통점과 차이점

6. 두 논문에 대한 이견

7. 새로운 이론쟁점

결론

4. 두 논문이 제출한 새로운 견해

1) ≪이론문제≫의 새로운 견해

최성원동지의 ≪이론문제≫는 ≪두개전선≫에 이어서 주체의 기성이론이 제출되었던 당시와 현시기의 정세변화에 기초하여 당시에는 해명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전략전술문제를 제출하며 이를 새로운 개념, 새로운 이론으로 해명하고 있다. ≪이론문제≫가 제출한 새로운 견해는 다음과 같다.

≪이론문제≫가 제출한 새로운 견해는 첫째, 통일전선에 대한 견해이다. 우선, ≪이론문제≫는 이남민족민주대오가 전략적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할 전략적인 통일전선으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을 제시하며 그 개념과 차이를 기성이론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이라는 개념을 기성이론과 비교하며 전략적인 통일전선개념으로 규정한 논문은 ≪이론문제≫가 처음일 것이다. 다음, ≪이론문제≫는 민족통일전선의 부분이며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단위로서의 지역통일전선 개념을 제출하며 이를 민족민주전선, 민족통일전선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한편 지역통일전선확대강화라는 개념을 지역통일전선강화만이 아니라 반통일세력타격의 의미까지 내포하며 사용하고 있다.

다음, ≪이론문제≫는 전략적 통일전선과 전술적 공동전선, 전술적 공조의 개념을 제시하며 북의 조국통일역량과 남과 해외의 민족민주역량간의 하층민족통일전선을 전략적 통일전선으로, 북의 정부와 남의 정부간의 상층민족통일전선을 전술적 공동전선으로, 남의 민족민주전선과 이남정부와의 관계를 전술적 공조관계로 규정함으로써 그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전술적 공동전선이라는 개념은 ≪이론문제≫를 통해 최초로 제출된 개념으로서 이 개념을 통해 북남해외의 하층민족통일전선과 북남정부간의 상층민족통일전선의 차이가 분명해지는 한편 전자의 전략적 의의가 선명히 부각되게 되었다. 또한 전술적 공동전선과 전술적 공조라는 개념으로 이남정부에 대한 북측 조국통일역량과 남측 민족민주역량의 입장차이가 분명하게 구별되게 되었다. 이는 6.15공동선언 이후 이남정부에 대한 견해와 관점차이로 인한 이남운동대오 내의 분열상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로 된다.

다음, ≪이론문제≫는 사회주의건설단계에서의 통일전선이 단순한 통일전선차원을 넘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경지에 이른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출하고 있다. 이는 통일전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견해로서 조선의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 수령, 당, 대중의 사회정치적 생명체계에서 조선노동당과 우당인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 간의 통일전선이 어떠한 경지에 도달하였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해 준다. 이 새로운 견해는 주체주의자대오와 맑스레닌주의자대오, 민족민주대오와 민족주의대오 간의 통일전선이 전략적 동맹관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건설단계에서는 새로운 높은 차원으로 발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으로 해서 향후 통일전선사업에서 긍정적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론문제≫가 제출한 새로운 견해는 둘째, 민족해방혁명에 대한 견해이다. 우선, ≪이론문제≫는 북측 혁명역량도 민족해방혁명역량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론문제≫는 북측 혁명역량은 사회주의혁명역량이고 남측 혁명역량은 민족해방혁명역량이라는 기존의 도식을 깨고 북측 혁명역량도 민족해방혁명역량이라며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론문제≫는 민족해방혁명의 전국적 성격을 해명하고 있다. ≪이론문제≫는 민족해방혁명은 전국적 범위의 혁명으로서 그 본질은 하나라는 견해, 주한미군을 철거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혁명은 이남지역혁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민족해방혁명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새롭게 제출하고 있다. 다음, ≪이론문제≫는 민족해방혁명을 사회주의혁명과 민족민주혁명이라는 두 지역혁명의 상위의 혁명으로 규정하며 상위의 혁명이라는 개념을 두 지역혁명의 당면과업을 규정하고 그 발전과정을 선도하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 ≪이론문제≫는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는 주도역량과 방조역량을 해명하고 있다. ≪이론문제≫는 ≪두개전선≫에 이어 민족해방혁명에서 북의 혁명역량이 주도역량이고 남의 혁명역량이 방조역량임을 해명하며 주도와 방조라는 개념은 주체성과 책임성이 아니라 역량관계를 표현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 ≪이론문제≫는 전국적 범위에서 수행되는 민족해방혁명을 조선혁명, 주체혁명이라고 정식화하며 이남에서의 반미자주화운동을 내포한다고 개념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문제≫의 민족해방혁명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은 특히 지난 10년간의 조국의 혁명정세, 통일정세를 총화하며 조미공동코뮈니케와 6.15공동선언 이후 절박하게 제기되는 전국적 관점의 민족해방혁명론을 정립하는데서나 반국적 관점을 극복하는데서나 크게 기여할 중요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론문제≫가 제출한 새로운 견해는 세째, 혁명영도체계에 대한 견해이다. ≪이론문제≫는 ≪두개전선≫에서 제출한 ≪북의 반제자주역량과 남의 민족민주역량과의 조직적 결합≫이라는 명제를 ≪북의 조선노동당과 남의 민족민주전선의 지도핵심역량간의 조직적 결합≫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식화하며 이를 이남민족민주전선의 강화발전과 이남 지역혁명승리의 관건적 문제로 제출하고 있다. ≪이론문제≫가 제출한 이 견해는 전국적 범위의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는 통일적인 영도체계에 대한 설명으로서 혁명적 수령관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데서나 반국적 관점을 극복하고 전국적 관점을 견지하는데서나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를 전격적으로 제출한 대담한 견해라고 할 것이다.

2) ≪전략적 과업≫의 새로운 견해

한호석소장의 ≪전략적 과업≫은 한호석소장이 그간 민족민주전선의 전략전술론과 관련하여 제출하였던 논문들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호석소장이 ≪전략적 과업≫에서 조미공동코뮈니케와 6.15공동선언 이후 새롭게 제기된 전략전술적 문제에 대하여 성격, 동력, 실현경로의 정연한 체계 하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견해를 제출하였다.

≪전략적 과업≫이 제출한 새로운 견해는 첫째, 민족자주는 민족해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민족자주를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이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과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현이라는 전략적 과업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며 그 수행과정을 선도한다는 견해이다. 결과 민족민주전선의 전략적 좌표인 자주, 민주, 통일의 자주라는 개념이 전국적 관점의 총체적 개념으로 재정립되게 되었다.

≪전략적 과업≫이 제출한 새로운 견해는 둘째, 민족통일전선의 반제자주적 성격과 통일지향적 성격을 구별하며 그에 기초해서 동력, 실현경로에 대하여 새롭게 밝힌 견해이다. 이는 항일시기 민족통일전선이나 다른 나라의 민족통일전선과 달리 분단된 조건에서 오늘 우리가 건설하여야 하는 민족통일전선의 두 가지 성격에 대한 해명으로 된다. 아울러 이 견해는 민족통일전선의 성격을 반제자주적 성격이나 통일지향적 성격 중 어느 하나만으로 보는 편향을 시정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로 된다.

≪전략적 과업≫이 제출한 새로운 견해는 세째, 전략적 과업들을 수행하는 중심동력과 보조동력을 비교설명하면서 반제자주적 민족통일전선의 중심동력을 북의 반제자주역량으로, 보조동력을 남과 해외의 민족민주역량으로 규정하고 통일지향적 민족통일전선의 중심동력을 북의 조국통일역량과 남의 민족민주역량 간의 조직적 결합으로, 보조동력을 남과 해외의 각계각층의 결집된 역량으로 규정하며 민주변혁운동의 통일전선의 중심동력을 노동대중과 농민대중의 기층민중으로, 보조동력을 중간층으로 규정한 견해이다. 이 견해로 인하여 통일전선운동의 중심동력과 보조동력이라는 역량편성문제가 자주, 민주, 통일의 체계 하에 전일적으로 해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략적 과업≫이 제출한 새로운 견해는 네째, 3대 전략적 과업의 실현경로를 설명하면서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은 1단계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이라는 전략적 과업은 각각 2단계로 수행된다는 견해이다. ≪전략적 과업≫이 민주주의혁명의 단계를 일반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로 구분하는 견해와 일반민주주의실현단계에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을 제압하며 그 근거이자 무기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은 당면해서 실천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전략적 과업≫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경로도 민족통일기구수립이라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쳐서 연방통일국가 건설로 나아간다는 견해를 ≪통일정세≫에 이어서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로 인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전략적 과업을 실현하는 경로가 전일적으로 해명되게 되었다.

이상의 ≪전략적 과업≫에서 새롭게 제출한 견해들은 한호석소장이 그간 발표한 논문들에서 부분적으로 제출되거나 시사된 바는 있지만 이상의 경우처럼 체계적으로 정식화하여 공개된 것은 이전 논문과 비교해서나 다른 논문과 비교해서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5. 두 논문의 견해상 공통점과 차이점

최성원동지의 ≪이론문제≫와 한호석소장의 ≪전략적 과업≫은 앞서 밝혔던 그 의의와 정세인식상의 공통점 외에도 두 논문이 제출한 새로운 견해상의 공통점이

있다.

두 논문의 견해상 공통점은 첫째, 이남민족민주대오가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건설하여야 하는 전략적인 통일전선을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이론가는 지난 논문들에 이어 이번 논문들에서도 일치하게 자주적 민주정부를 지향하는 전략적인 통일전선을 민족민주전선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전략적인 통일전선을 민족통일전선으로 개념규정하고 있다. 두 논문은 기성이론의 반미구국통일전선이나 남북통일전선이라는 개념 대신에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두 논문의 견해상 공통점은 둘째, 전국적 범위에서의 반제자주역량의 포진구도에서 북의 반제자주역량을 중심역량으로 남의 민족민주역량을 보조역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도역량과 방조역량이냐 중심동력과 보조동력이냐는 표현상 차이만 있을 뿐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북의 혁명역량을 중심역량으로 규정하고 남의 혁명역량을 보조역량으로 규정하는 데서 두 논문의 견해는 완전히 일치한다.

두 논문의 견해상 공통점은 세째, 전국적 범위의 조선혁명을 개념규정하며 이를 지역혁명의 상위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적 범위의 조선혁명을 민족해방혁명이냐 민족자주완성과업이냐는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상위의 혁명과업이 지역혁명의 당면과업을 규정하고 그 발전과정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두 논문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여기서 필자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론문제≫는 두 지역혁명의 당면과업을 규정한다고 표현하는데 비해 ≪전략적 과업≫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이라는 전략적 과업을 직접적으로 규정한다고 표현하여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두 논문의 견해상 공통점은 네째, 전국적 관점에서 북의 혁명역량과 남의 혁명역량의 조직적 결합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론문제≫는 ≪두개전선≫에 이어 공공연하게 조선노동당과 이남민족민주전선의 지도핵심역량간의 조직적 결합을 강조하며 ≪혁명영도체계≫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전략적 과업≫은 민족자주성완성과업에 대한 설명에서 민족자주의 기치는 북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남의 민족민주혁명역량을 ≪하나의 유기체≫로 결합하는 사상이라며 북과 남의 반제자주역량의 목적의식적인 조직체계적 배치를 강조하는 한편 자주적 평화통일실현과업에 대한 설명에서는 아예 그 중심동력을 북과 남의 혁명역량 간의 조직적 결합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론문제≫와 동일한 맥락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두 논문의 견해상 공통점은 다섯째, 이남민족민주세력이 친미예속적 반민주반통일세력을 제압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견해를 ≪이론문제≫가 이남민족민주세력이 상반기에 반통일세력을 집중적으로 타격하지 못하여 전술적으로 패배하였다는 총화와 더불어 6.15공동선언실현에 반대하는 반통일세력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지역통일전선운동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강조하였다면, ≪전략적 과업≫은 6.15공동선언 이후 친미예속세력이 반민주세력과 개혁세력으로, 반통일세력과 통일지향세력으로 분리되었다는 점과 일반민주주의단계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는데서 이러한 투쟁이 가지는 결정적 의의를 설명하며 강조하고 있다.

두 논문의 견해상 공통점은 여섯째, 이남민족민주세력의 정치세력화는 진보정당을 통해서 실현되며 진보정당을 통해서만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점이다. 비록 ≪이론문제≫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편인 ≪두개전선≫은 이러한 견해를 명확히 피력하고 있다. 한편 ≪전략적 과업≫은 ≪통일정세≫에 이어 진보정당을 민족해방혁명과 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며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정치조직으로 규정하면서 그 의의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참고로 진보정당에 대한 견해에서는 두 논문에 대하여 이견을 가진 일부단위에서조차 일치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두 논문이 제출한 새로운 견해들은 일부 표현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서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한편 두 논문에는 동일한 현상을 다른 차원에서 고찰함으로써 파생되는 독특한 개념과 논리가 존재한다. 완전히 상반된 견해라고도, 단순히 표현상 차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몇가지 차이점은 물론 앞서 밝힌 견해상 공통점에 비하면 지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이론문제≫에서는 지역통일전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데 비해, ≪전략적 과업≫에서는 그러한 개념 대신 다른 개념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론문제≫는 민족통일전선의 부분으로서, 그 지역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단위인 지역통일전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그 범주와 관련지어 이남지역에서의 민족통일전선강화사업과 반통일세력제압투쟁,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 ≪전략적 과업≫은 ≪통일정세≫에 이어 북과 남의 혁명역량편성과 민족통일기구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이남에서 민족민주세력이 친미예속적 반민주반통일세력 제압투쟁과 국가보안법철폐투쟁에 중심을 두어야 하며 이남에서와 남북해외의 민족통일전선운동에 복무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둘째, ≪이론문제≫에서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반제자주운동에서나 조국통일운동에서나 일치하게 북의 혁명역량을 중심동력으로 보는 데 비해, ≪전략적 과업≫에서는 반제자주적 민족통일전선과 통일지향적 민족통일전선에서의 중심동력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전략적 과업≫은 전자의 경우에는 북의 혁명역량만을 중심동력으로 보고 후자의 경우에는 북의 혁명역량과 남의 혁명역량의 조직적 결합을 중심동력으로 보고 있다. 물론 지난 논문들을 분석해 볼 때, 한호석소장이 후자의 경우에도 북의 혁명역량과 남의 혁명역량간의 역량상의 차이가 있으며 북의 혁명역량을 보다 중심적인 역량으로 전제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것은 세째, ≪이론문제≫에서는 두 지역혁명의 상위의 개념에 조선혁명, 주체혁명이라는 의미의 민족해방혁명이라는 개념을 두는데 비해, ≪전략적 과업≫에서는 민족자주위업완성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의 상위에 놓는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이론문제≫에서는 두 지역혁명과 전국혁명의 관계문제가 관심의 촛점이라면, ≪전략적 과업≫에서는 민족자주위업완성과 이남지역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전국적인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의 관계 문제, 곧 자주, 민주, 통일의 상호관계가 관심의 촛점이 되었다.

그것은 네째, ≪이론문제≫의 전편인 ≪두개전선≫에서는 전략적 타격투쟁과 전술적 타격투쟁의 개념을 제출하며 정권의 존재자체를 타격하는 투쟁과 그 속성을 타격하는 투쟁으로 규정하였는데 비해, ≪전략적 과업≫에서는 전략적 타격을 제국주의세력에 대한 타격, 전술적 타격을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에 대한 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이 두 논문이 전략적 타격과 전술적 타격이라는 개념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차이일 뿐 서로의 견해에 대한 부정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두 논문이 기본적으로 견해를 같이함에도 불구하고 표현상의 차이나 일부 관점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두 이론가의 활동방식의 차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최성원동지가 이남에서 주로 주체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비합법적으로 글을 발표하고 있다면 한호석소장은 해외에서 주로 전국연합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민≫지 등에 합법적으로 글을 발표하고 있다.

이처럼 전혀 다른 차원에서 활동하는 두 이론가가 몇가지 개념과 표현상의 차이 외에 기본관점이나 주된 견해에서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첫째, 최성원동지와 한호석소장은 주체의 새로운 전략전술개념을 정교하게 다듬어 제출한 후 활동가들의 반응을 보아가며 새로운 단계로 심화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조국에는 통일혁명을 영도하는 전위당이 엄연히 존재하며 전위당만이 주체의 전략전술개념을 새롭게 규정하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조건에서 거침없이 주체의 전략전술의 개념과 논리를 보완하고 정식화하여 새롭게 제출하는 두 이론가의 활동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성원동지가 최근 ≪이론문제≫에서 ≪착오≫를 정정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최성원동지는 ≪이론문제≫에서 ≪두개전선≫의 착오를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남북정부간의 합작은 ≪통일전선≫이 아니라 ≪공동전선≫, 정확히 표현해 ≪전술적 공동전선≫이라고 정정하고 있다. 사실 남북정부간에 ≪통일전선≫이 가능하다는 견해는 ≪통일전선론≫이라는 전위당의 80년대 중반논문이 제출한 견해로서 ≪통일전선≫이라는 표현을 착오라고까지 정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두개전선≫에서도 이남정부가 6.15공동선언을 파기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통일전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던 만큼 ≪두개전선≫의 ≪통일전선≫개념은 사실상 ≪이론문제≫의 ≪공동전선≫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론문제≫는 여러 군데에서 ≪통일전선≫을 ≪공동전선≫을 내포하는 광의의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전술적 공동전선≫ 개념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의의도 있지만, 필자는 최성원동지가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자신을 포함하여 누구나 다 이론을 전개하는데서 착오를 범할 수 있으며 이론가에게 중요한 것은 착오를 범하지 않는 것 못지 않게 착오를 허심하게 인정하는 자세라는 점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은 둘째, 최성원동지와 한호석소장의 이론활동이 정세변화에 즉각적으로 조응하며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방대하고 심오한 주체의 전략전술론을 정세변화에 맞게 새롭게 정립하는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도 아니다. 이는 최성원동지와 한호석소장의 이론활동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주체의 사상과 전략이라는 하나의 원류에서 출발한 것이며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표면화된 것임을 시사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세째, 전략적 개념의 표현은 동일하게 사용하면서도 일부 개념의 표현들은 뚜렷하게 차이를 둔다는 점이다. 두 논문은 우리 운동대오가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과 같이 일치하게 사용하여야 할 전략적 개념들은 완전히 동일하게 사용하면서도 충분히 표현을 달리할 수 있는 개념들은 이를테면 주도역량과 방조역량, 중심동력과 보조동력과 같은 식으로 달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이고 내용적인 부분에서의 일치와 표현상의 차이는 주체의 새로운 전략전술이론을 정립해 가는 과정에서 개념과 논리를 입체적으로 풍부하게 조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
(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26호)